

제20호(2016. 9. 30.)

중국의 농식품 수입 동향과 시사점

지성태 유정호



1. 중국의 농식품 수입 개요	1
2. 부류별 농식품 수입 동향	5
3. 시사점	13

감 수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061-820-2312	kkphil@krei.re.kr
내용 문의	지성태 부연구위원	042-825-9551	dongsimjst@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최근 10년('06~'15년)간 중국 농식품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5.6%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임.
 - 동 기간 세계 농식품 교역에서 중국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서 7.1%로 상승
 - 중국의 세계 곡물, 과일·채소, 축산물, 가공식품 수입시장 점유율(수입액 기준)은 각각 19.4%, 2.1%, 20.9%, 4.1%임.
- 중국의 농식품 수입 증가 배경은 소득수준 향상, 도시인구 증가와 농촌주민의 소비 확대
 - 최근 10년간 중국의 1인당 GDP는 16,602위안에서 49,215위안으로 약 3배로 증가
 - 2015년 중국의 도시인구는 7.7억 명으로 지난 10년간 32.3% 증가
 - 2006~2014년 농촌주민 1인당 육류, 우유, 과일 소비량은 각각 33.4%, 103.4%, 46.7% 증가
- 2016년 상반기(1~6월) 중국의 주요 농식품 수입은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식량) 쌀, 밀, 옥수수과 대두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4%, 26.6%, 9.6%와 9.7% 증가
 -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와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8%, 138.3%, 6.7%와 29.0% 증가
 - (과일) 포도, 키위, 용안과 두리안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 32.0%, 2.9%와 1.5% 증가
 - (가공식품) 분유, 포도주와 커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5%, 21.9%와 100.7% 증가
- 향후 중국의 농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입 증가가 세계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중국 내 농산물 수급 불안정 요인에 주목할 필요
 - 우리나라처럼 농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개별 품목의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경우, 중국의 세계 수입농식품시장 점유율 확대로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중국 내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요인에 의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중국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안정적인 다양한 수입선 확보 필수
- 중국의 수입농식품시장 진출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식품산업의 활로 모색 가능
 -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업의 전략적 접근, 농업부문의 혁신적 대응을 기반으로 중국의 수입농식품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이미 국내시장이 포화된 우리 농식품산업과 성장 동력이 약화된 농업부문의 활로 모색 필요

최근 10년간 중국 농식품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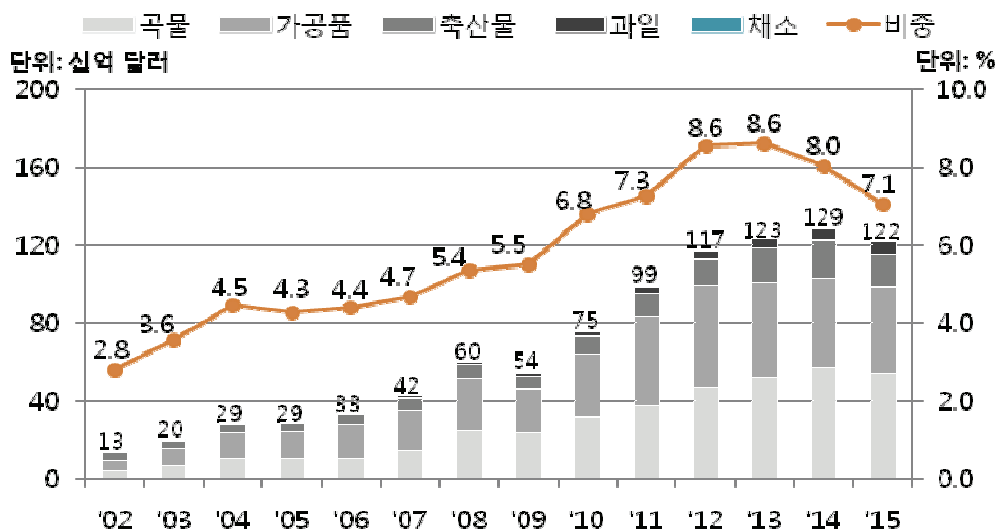
1. 중국의 농식품 수입 개요

1.1. 중국의 농식품 수입 동향

□ 최근 10년('06~'15년)간 중국 농식품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5.6%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중국의 농식품 수입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제 농식품 가격 인하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의 영향
 - 곡물과 육류의 수입액이 감소한 가운데, 옥수수, 쌀, 보리, 수수, 돼지고기,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수입량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
- 2015년 전체 수입농식품 가운데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44.3%)이 가장 크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0.6%를 기록하며 농식품 수입 증가 주도
 - 그 외, 가공식품, 축산물, 과일 비중은 각각 36.1%, 13.9%, 5.2%이고, 동 기간 과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6.6%로 가장 높으며, 가공식품과 축산물은 각각 10.8%와 15.6% 기록

그림 1. 중국의 농식품 수입액과 비중 변화 추이



주: 2014~2015년 비중은 FAO 통계자료를 기초로 추정함.
자료: GTIS-GTA

세계 농식품 교역에서 중국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

□ 세계 전체 농식품 교역 중 중국의 수입액 비중이 빠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하락

- 중국의 WTO 가입(2001년 11월) 이후 농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 세계 농식품 교역에서 중국의 수입액 비중이 8.6%를 기록하였고, 2015년 7.1%로 하락
 - 최근 중국의 농식품 수입량이 증가함에도 수입액 비중이 하락한 원인은 중국의 수입농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곡물의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
 - 2015년 중국의 곡물 수입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축산물 수입액이 세계 전체 축산물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가장 크고, 과일채소의 비중은 2.1%로 가장 작음.
 - 그 외, 중국의 세계 곡물과 가공식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19.4%와 4.1%임.
- 농식품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모든 부류에서 중국 수입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모든 부류별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음.

표 1. 세계 농식품 교역 대비 중국과 한국의 수입액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전 세계		중 국			한 국		
	수입액 (A)	연평균 증가율	수입액 (B)	비중 (B/A)	연평균 증가율	수입액 (C)	비중 (C/A)	연평균 증가율
전 체	1,734,363	9.7	122,265	7.1	18.8	29,073	1.7	7.8
곡 물	279,525	13.0	54,136	19.4	23.4	7,005	3.7	7.6
과일채소	330,546	10.5	6,970	2.1	24.6	2,959	0.9	11.5
축산물	81,240	1.14	17,003	20.9	12.8	5,937	7.7	5.7
가공식품	1,088,166	8.6	44,155	4.1	17.5	13,172	1.2	8.4

주 1) 연평균 증가율은 2006~2015년 기준.

2) 2014~2015년 자료는 FAO 통계자료를 기초로 추정함.

자료: GTIS-G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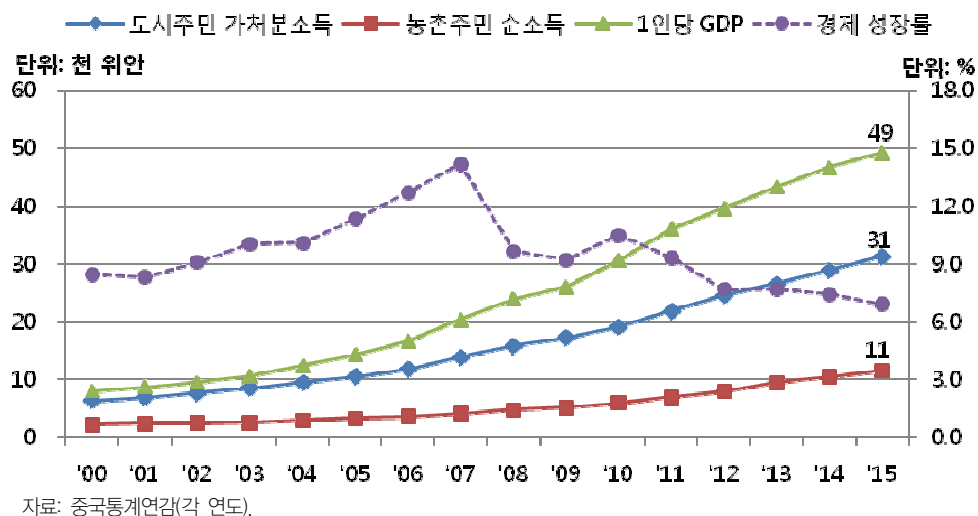
중국의 농식품 수입 증가 배경은 소득수준 향상, 도시인구 증가와 농촌주민의 소비 확대

1.2. 중국의 농식품 수입 증가 배경

□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식생활 개선 및 농식품 수요 증가

-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매력 상승과 함께 농식품 수요 증가
 - 최근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¹⁾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0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9.5%를 기록
 - 최근 10년('06~'15년)간 중국의 1인당 GDP는 16,602위안에서 49,215위안으로 약 3배로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3.0%임.
 - 동 기간 도시주민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 순소득도 연평균 각각 11.3%와 11.4% 증가

그림 2. 중국 도시와 농촌의 소득수준 및 경제 성장률



□ 도시인구 증가 및 농촌주민의 소비 확대가 농식품 수요 증가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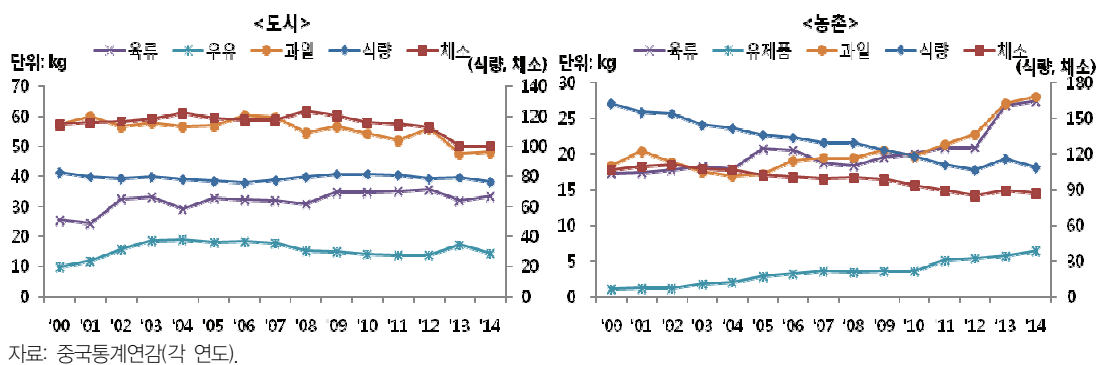
- 도시주민 1인당 농식품 소비량은 대체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촌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로 도시의 전체 농식품 소비량이 증가
 - 2015년 중국의 도시인구는 7.7억 명으로 지난 10년간 32.3% 증가한 반면, 농촌인구는 6.0억 명으로 동 기간 17.5% 감소

1) 신창타이 시대: 고속 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중고속 성장, 구조조정, 성장동력 전환, 불확실성 증대 등을 특징으로 함.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확대로 농식품 소비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농촌주민 1인당 농식품 소비량이 도시주민에 비해 월등히 작은 상황에서 소득수준 향상으로 식량(곡물, 서류, 두류), 채소를 제외한 육류, 유제품, 과일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4년 농촌주민 1인당 육류, 우유, 과일 소비량은 각각 27.4kg, 6.4kg, 28.0kg이고, 도시주민의 경우 각각 33.3kg, 14.4kg, 48.1kg임.
 - 2006~2014년 농촌주민 1인당 육류, 우유, 과일 소비량은 각각 33.4%, 103.4%, 46.7% 증가

그림 3. 도시와 농촌주민 1인당 주요 농식품 소비 동향



□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른 중산층 확대로 농식품 소비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McKinsey의 분석에 따르면,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부유층과 상위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확대 주도
 - 연 가처분소득이 16,000달러 이상인 도시지역 상위중산층 가구와 연 가처분 소득이 34,000달러 이상인 부유층 비중이 2022년 각각 도시지역 전체 가구의 54%와 9%로 상승하고,
 - 2012~2022년 상위중산층과 부유층의 가계소비액이 각각 연평균 22.4%와 19.6%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표 2. 중국 도시지역 중산층 가구 수와 가계소비액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유형		가구 수 기준		가계소비액 기준		
구 분	기준	2012년	2022년	2012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부유층	≥\$34,000	3	9	11	25	19.6
상위중산층	≥\$16,000	14	54	20	56	22.4
하위중산층	≥\$9,000	54	22	54	14	-3.3
빈곤층	<\$9,000	29	16	16	5	-1.5

자료: McKinsey Quarterly(2013).

최근 중국의 식량 수입 급증은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짐

2. 부류별 농식품 수입 동향

2.1. 식량

□ 중국의 식량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자급률 지속적으로 하락

- 2004년 이후 12년 연속 식량 증산에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량 급증으로 자급률 하락세
 - 국내 생산량 대비 수입량이 여전히 적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짐.
 - 2015년 쌀, 밀, 옥수수의 자급률은 각각 98.5%, 97.8%, 97.9%임.
 - 보리와 수수의 수입량은 1천만 톤을 초과하여 2014년 대비 각각 97.9%와 85.2% 증가
- 식량의 국내 생산량 증가 및 식용 소비 둔화에도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사료용과 가공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
 - 즉,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육류 및 주류,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사료용과 가공용 식량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표 3. 주요 식량 수입량과 자급률 변화 추이

(단위: 만 톤,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45,099	45,632	47,847	48,156	49,637	51,939	53,935	55,269	55,741	57,225
쌀	생산량	18,172	18,603	19,190	19,510	19,576	20,100	20,424	20,361	20,651	20,825
	수입량	73	49	33	36	39	60	237	227	258	338
	자급률	100.3	100.5	100.3	100.2	100.1	100.0	99.0	99.1	99.0	98.5
밀	생산량	10,847	10,930	11,246	11,512	11,518	11,740	12,102	12,193	12,621	13,019
	수입량	61	10	4	90	123	126	370	554	301	301
	자급률	100.8	102.8	100.2	99.4	99.2	99.2	97.3	95.9	97.8	97.8
옥수수	생산량	15,160	15,230	16,591	16,397	17,725	19,278	20,561	21,849	21,565	22,458
	수입량	7	4	5	8	157	175	521	327	260	473
	자급률	102.0	103.3	100.1	100.0	99.2	99.2	97.6	98.6	98.8	97.9
대두	생산량	2,004	1,720	2,043	1,930	1,897	1,908	1,731	1,595	1,626	1,588
	수입량	2,828	3,082	3,743	4,255	5,479	5,263	5,838	6,341	7,140	8,174
	자급률	41.8	36.1	35.6	31.4	25.8	26.7	23.0	20.2	18.6	16.3

주 1) '전체'는 쌀, 밀, 옥수수 외에 기타 곡류를 모두 포함.

2) 자급률=생산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100.

3) 대두의 자급률은 두류의 전체 생산량과 대두의 수출입량을 이용하여 산출함으로써 실제 값보다 과소 추정됨.

자료: GTIS-GTA, 中國統計年鑑



2016년 상반기 쌀, 밀, 옥수수와 대두는 수입 증가세 이어감

- 대두는 중국의 중요한 식량작물 중 하나로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로 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
 - 2015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8,174만 톤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2.5% 증가했고, 이에 따라 대두 자급률은 20% 이하로 하락함.
 - ※ 대두는 주로 식용유와 두부의 원료로 사용되며, 중국인의 식생활에서 이 두 가지 식품은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품목일 뿐만 아니라 그 부산물은 중요한 사료원료로 사용됨.
- 중국의 주요 식량 수입대상국은 대체로 2~3개 국가에 국한되어 수입 집중도가 높은 편임.
 - 쌀은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되고, 옥수수와 수수는 각각 우크라이나와 미국에서 80% 이상이 수입됨.

표 4. 중국의 주요 식량 수입대상국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순위	쌀	밀	옥수수	보리	수수	대두
1	베트남(53.2)	호주(41.9)	우크라이나(81.4)	프랑스(41.2)	미국(83.2)	브라질(49.1)
2	태국(28.3)	캐나다(33.0)	미국(9.8)	호주(40.6)	호주(16.1)	미국(34.8)
3	파키스탄(13.1)	미국(20.0)	불가리아(3.4)	캐나다(9.7)	아르헨티나(0.7)	아르헨티나(11.5)

주: ()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GTIS-GTA.

□ 2016년 상반기 쌀, 밀, 옥수수와 대두는 수입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보리와 수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2016년 1~6월 쌀 수입량은 20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증가세가 이어짐.
- 밀 수입량은 17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했으나, 평년 대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옥수수 수입량은 29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고, 평년 대비 증가율은 64.3%로 큰 폭으로 증가함.
- 2015년 연간 수입량이 1천만 톤을 초과한 보리와 수수의 2016년 상반기 수입량은 각각 219만 톤과 40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평년 대비 여전히 큰 증가폭을 보임.
- 대두 수입량은 3,856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고, 지속적인 수입 증가로 평년 대비 27.4% 증가

최근 중국의 육류 생산량 증가에도 소비 증가로 수입 급증

표 5. 2016년 상반기(1~6월) 주요 식량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

구 분	평 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률	평년 대비 증감률
쌀	1,280	1,429	2,006	40.4	56.7
밀	1,671	1,414	1,790	26.6	7.1
옥수수	1,769	2,651	2,906	9.6	64.3
보 리	1,665	5,367	2,193	-59.1	31.7
수 수	730	5,356	4,048	-24.4	454.2
대 두	30,260	35,156	38,562	9.7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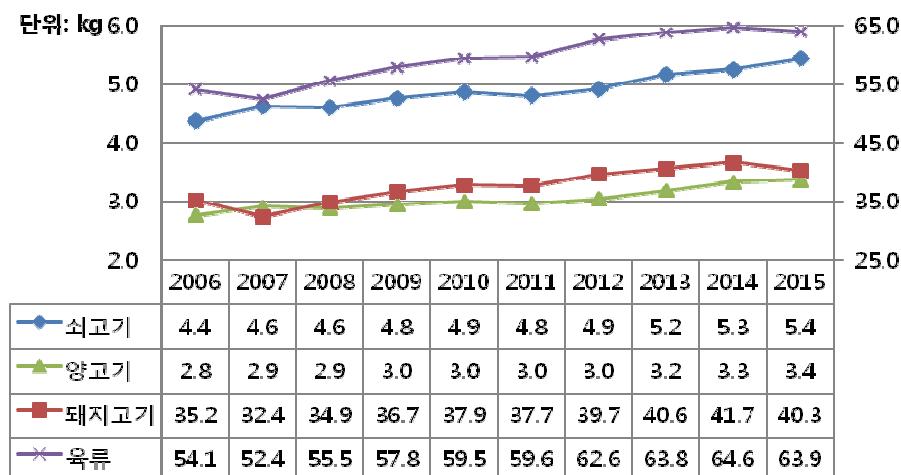
자료: GTIS-GTA.

2.2. 육류

□ 최근 중국의 육류 생산량 증가에도 소비 확대로 육류 수입 급증

- 2015년 중국의 육류 생산량은 8,625만 톤이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2.2% 증가
 - 돼지고기 생산량은 5,487만 톤으로 전체 육류 생산량의 63.6%를 차지하고, 쇠고기와 양고기 생산량은 각각 700만 톤(8.1%)과 441만 톤(5.1%)이며, 나머지는 가금육 등임.
- 2015년 중국인 1인당 육류 소비량은 63.9kg이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1.9% 증가
 - 그중 돼지고기 소비량이 40.4kg으로 전체 육류 소비의 63.2%를 차지하고, 쇠고기와 양고기 소비량은 각각 5.4kg(8.5%)과 3.4kg(5.3%)임.

그림 4. 중국인 1인당 육류 소비량 변화 추이



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총 수요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단, 수출입량은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에 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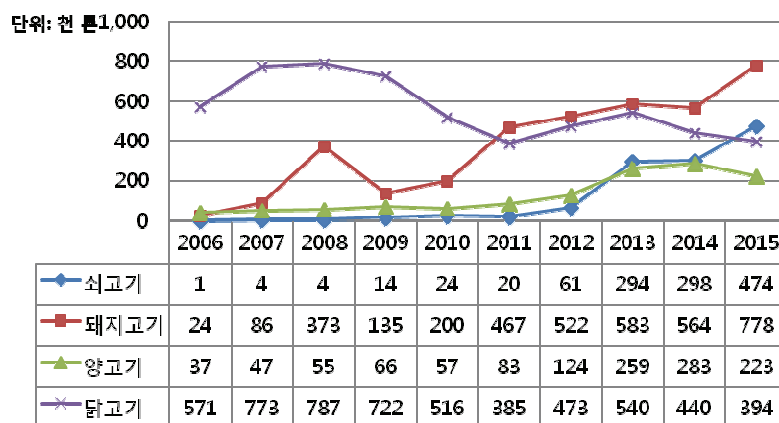
자료: 중국통계연감(각 연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육류 수입대상국은 대체로 중첩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중국의 육류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국제 육류 수입 시장 점유율도 높아짐.
 - 2015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53.3만 톤으로 2010년 대비 2.9배 증가했고, 쇠고기와 양고기 수입량은 각각 47.4만 톤과 22.3만 톤으로 동 기간 각각 19.0배와 2.9배 증가함. 반면, 닭고기 수입량은 23.5% 감소
 - 이에 따라 국제 육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2015년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와 닭고기의 점유율은 각각 16.5%, 13.8%, 7.4%와 3.6%임.
 - 수입 증가로 육류 자급률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 기준 중국의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자급률은 각각 98.7%, 93.7%, 95.2% 기록

그림 5. 주요 육류 수입량 변화 추이



자료: 중국통계연감(각 연도).

-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육류 수입대상국은 대체로 중첩되는 경향을 보임.
 - 중국의 쇠고기(호주, 뉴질랜드), 돼지고기(독일, 스페인, 미국), 양고기(뉴질랜드, 호주), 닭고기(브라질, 미국) 주요 수입대상국은 모두 우리나라와 동일

표 6. 중국의 주요 육류 수입대상국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순위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1	호주(32.9)	독일(26.4)	뉴질랜드(62.2)	브라질(74.7)
2	우루과이(26.0)	스페인(17.6)	호주(36.6)	아르헨티나(9.6)
3	뉴질랜드(14.8)	미국(13.1)	우루과이(0.9)	미국(7.4)

주: ()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GTIS-GTA.

2016년 상반기 주요 육류 수입량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2016년 상반기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와 닭고기 수입량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2016년 1~6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76.2만 톤을 기록하며 2015년 연간 수입량을 이미 초과하였고, 2015년 동 기간 대비 138.3% 증가
- 쇠고기와 양고기 수입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쇠고기 수입량은 약 30만 톤에 육박하여 전년 동기 대비 60.8% 증가했고, 양고기 수입 증가율은 6.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최근 다소 정체되어 있던 닭고기 수입량도 2016년 들어 증가세를 보였고, 상반기 수입량은 25.6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

표 7. 2016년 상반기(1~6월) 주요 육류 수입 현황

(단위: 톤, %)

구 분	평 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률	평년 대비 증감률
쇠고기	97,495	183,870	295,721	60.8	203.3
돼지고기	280,799	319,891	762,338	138.3	171.5
양고기	107,346	130,844	139,563	6.7	30.0
닭고기	202,227	198,756	256,458	29.0	26.8

자료: GTIS-GTA.

2.3. 과일

□ 중국 과일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일부 열대과일과 체리, 포도, 키위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 최근 10년(2005~2014년)간 주요 5대 과일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7.3%임.
 - 2014년 기준 중국의 전체 과일 생산량은 2억 6천만 톤으로 2005년 대비 62.2% 증가
 - 동 기간 감귤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포도(9.0%), 바나나(6.8%), 사과(6.1%), 배(5.3%) 순임.
- 일부 열대과일(바나나, 용과, 용안, 두리안)과 체리, 포도, 키위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 바나나는 수입규모가 가장 큰 과일로 2014년 이미 1백만 톤을 돌파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2.0%임.



2016년 상반기 포도와 키위 수입은 급증세를 이어감

- 2015년 용과, 용안과 두리안 수입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1.7%, 8.6%와 15.0%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과일이기도 한 체리, 포도와 키위 수입량은 각각 9.2만 톤, 21.6만 톤과 9.0만 톤으로 우리나라 수입량보다 월등히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8.0%, 18.7%와 27.0%로 상당히 빠른 증가세를 보임.

표 8. 주요 수입과일 연평균 증가율(2006~2015년)

(단위: 톤, %)

구 분	바나나	용과	용안	두리안	체리	포도	키위
2006년	387,561	35,391	168,482	85,220	189	46,004	10,507
2015년	1,073,843	813,480	354,126	298,793	91,502	215,899	90,178
연평균 증가율	12.0	41.7	8.6	15.0	98.0	18.7	27.0

주: 이상 과일은 모두 신선 기준.

자료: GTIS-GTA.

- 중국의 주요 열대과일 수입대상국은 ASEAN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고, 체리, 포도, 키위의 수입대상국은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함.
 - 열대과일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수입되고, 체리(칠레, 미국), 포도(칠레, 페루, 미국), 키위(뉴질랜드, 칠레, 이탈리아)의 수입대상국은 우리나라와 중첩됨.

표 9. 중국의 주요 과일 수입대상국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순위	바나나	용과	용안	두리안	체리	포도	키위
1	필리핀 (64.0)	베트남 (100)	베트남 (59.0)	태국 (100)	칠레 (81.2)	칠레 (41.9)	뉴질랜드 (73.4)
2	에콰도르 (26.4)	-	태국 (41.0)	말레이시아 (0.0)	미국 (14.2)	페루 (34.3)	칠레 (12.8)
3	미얀마 (5.2)	-	-	-	캐나다 (3.6)	미국 (10.1)	이탈리아 (9.9)

주 1) () 안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2)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두리안 수입량은 소량(300g)임.

자료: GTIS-GTA.

□ 2016년 상반기 주요 열대과일 수입 증가세는 다소 정체되었고, 포도와 키위 수입은 급증세를 이어감.

- 2016년 1~6월 바나나와 용과 수입량은 각각 47.6만 톤과 28.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4%와 31.7% 감소
- 동 기간 용안과 두리안 수입량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짐.

식생활 패턴 다양화 및 수입산에 대한 선호도 상승 등으로 각종 가공식품의 수입 증가

- 체리, 포도, 키위 수입량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6년 1~6월 포도와 키위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와 32.0% 증가했고, 체리는 5.2% 감소

표 10. 2016년 상반기(1~6월) 주요 과일 수입 현황

(단위: 톤, %)

구 분	평 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률	평년 대비 증감률
바나나	417,467	645,928	475,668	-26.4	13.9
용 과	232,563	422,214	288,368	-31.7	24.0
용 안	177,491	181,153	186,472	2.9	5.1
두리안	155,238	158,210	160,629	1.5	3.5
체 리	34,145	70,964	67,263	-5.2	97.0
포 도	147,072	193,117	227,874	18.0	54.9
키 위	27,503	43,780	57,795	32.0	110.1

자료: GTIS-GTA.

2.4. 가공식품

□ 중국인의 식생활 패턴 다양화 및 수입산에 대한 선호도 상승 등으로 각종 가공식품의 수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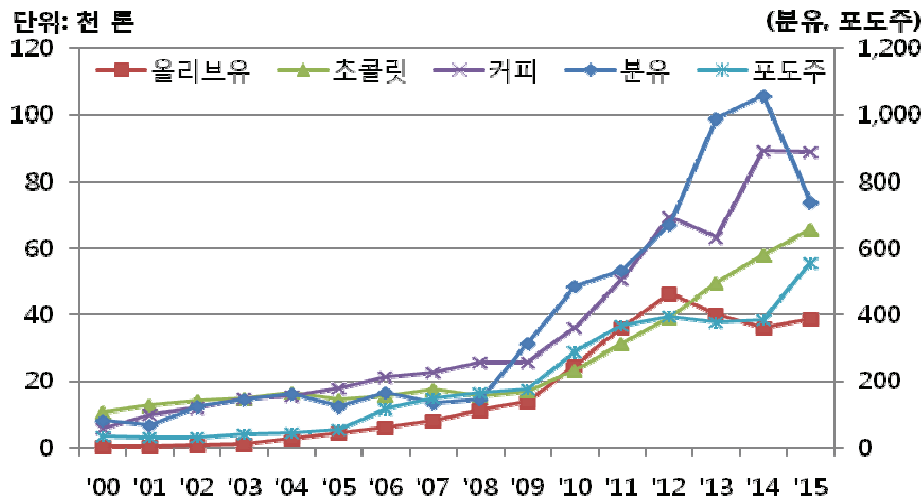
- 소득수준 향상으로 식생활 패턴이 다양화되어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내 식품안전사고의 잦은 발생으로 수입산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함.
- 멜라닌 분유 파동이 발생한 2008년 이후 분유(전자탈자조제 포함) 수입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큰 폭으로 감소
 - 2008년 분유 수입량은 14.4만 톤에 불과했으나 2014년 105.6만 톤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5년 73.8만 톤으로 감소
 - 2015년 전체 분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유아용 분유인 조제분유 수입량은 18.0만 톤으로 오히려 2014년보다 46.2% 증가
 - 분유는 주로 뉴질랜드(62.6%), 네덜란드(9.3%), 호주(5.1%) 등에서 수입
- 중국의 포도주 소비층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들어 포도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약 20%의 증가율을 보임.
 - 2000년 포도주 수입량은 3.5만 톤에 불과했으나 2010년 28.6만 톤으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55.6만 톤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2015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포도주는 주로 프랑스(31.0%), 칠레(27.7%), 스페인(14.0%) 등에서 수입



2016년 상반기 분유, 포도주, 커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초콜릿과 커피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져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증가
 - 2015년 초콜릿 수입량과 수출량은 각각 6.6만 톤과 5.8만 톤으로 연평균 17.3%와 13.4% 증가
 - 2015년 커피 수입량과 수출량은 각각 8.9만 톤과 10.6만 톤으로 연평균 17.2%와 7.8% 증가
 - 초콜릿은 주로 이탈리아(30.0%), 독일(12.0%), 벨기에(8.9%) 등에서 수입되고, 커피는 주로 베트남(38.6%), 인도네시아(17.8%), 말레이시아(15.0%) 등에서 수입
- 최근 식용유 소비 증가와 소비패턴 다양화로 올리브유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
 - 2000년 올리브유 수입량은 330톤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4.6만 톤에 달했고, 2015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3.9만 톤 기록
 - 올리브유는 주로 스페인(77.3%), 이탈리아(12.5%), 그리스(2.6%) 등에서 수입

그림 6. 주요 가공식품 수입량 변화 추이



자료: GTIS-GTA

□ 2016년 상반기 분유, 포도주, 커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초콜릿과 올리브유 수입은 감소

- 2016년 1~6월 분유 수입량은 51.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함으로써 다시 2014년 수입량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중국의 농식품 수입 증가는 세계 농식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구조 변화 초래 가능

- 동 기간 포도주 수입량은 3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함으로써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감.
- 초콜릿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함으로써 지속적인 증가세가 꺾였으나 평년 대비 19.2% 많은 수준
- 커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배 이상 증가한 6.3만 톤을 기록하며 수입 증가세가 이어짐.
- 올리브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1.5%) 감소함으로써 수입 감소세를 이어감.

표 11. 2016년 상반기(1~6월) 주요 가공식품 수입 현황

(단위: 톤, %)

구 분	평 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률	평년 대비 증감률
분 유	411,435	426,003	513,421	20.5	24.8
포도주	186,163	246,007	299,792	21.9	61.0
초콜릿	14,431	21,820	17,203	-21.2	19.2
커피	29,017	31,328	62,867	100.7	116.7
올리브유	16,555	16,334	16,092	-1.5	-2.8

주: 분유는 축산물에 포함되며, 편의상 가공식품으로 분류함.

자료: GTIS-GTA

3. 시사점

□ 소득수준 향상 및 중산층 확대, 도시인구 증가 등으로 중국의 농식품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농식품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중국이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 8% 이상의 고속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중고속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율 제고로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수입이 증가하여 농산물 자급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수입농식품시장 진출을 통해 우리 농식품산업의 활로 모색 필요

□ 중국의 농식품 수입 증가는 세계 농식품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입구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농식품 수입 증가는 세계 전체 농식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공급이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을 경우 국제 농식품 가격 상승 우려
- 이에 농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개별 품목의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수입대상국이 중국과 중첩된 국가의 경우, 중국의 세계 수입농식품시장 점유율 확대에 의해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육류 등의 수입대상국이 중국과 중첩된 상황에서 양국의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선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원화 등의 대비책 필요

□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수입농식품시장 진출을 통해 우리 농식품산업의 활로 모색 필요

- FTA 개방폭 확대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업의 성장동력 약화, 시장 포화로 인한 국내 식품산업 발전 잠재력 저하 등의 위기 가운데 중국의 수입농식품시장 진출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
- 물론, 여전히 높은 중국의 농식품 비관세장벽, 중국 내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이미 진출한 외국계 농식품기업과의 경쟁 심화, 정치·경제·외교적 불확실성 증대 등의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업의 전략적 접근, 농업부문의 혁신적 대응이 필수적
- 예를 들어, 최근 검역협상 타결로 개시된 對중국 삼계탕과 신선포도 수출이 국내 시장 포화로 고전하고 있는 양계산업과 소비대체 과일 증가로 크게 위축된 포도산업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

□ 자연재해 등의 위험요인에 따른 중국의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필요

- 중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소비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세계 농산물 수급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곧 중국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세계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중국은 2004년 이래로 12년 연속 식량 증산에 성공하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으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황 부진, 작목 전환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 올해 초 중국과학원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2016년 식량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로 2016년 하곡(夏穀) 생산량이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 이러한 예기치 못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중국의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도가 낮은 나라의 식량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이고 다양한 수입선 확보 필수
- 최근 중국 국유기업인 중량집단유한공사(COFCO)가 니테라, 노블그룹 등 곡물기업을 인수하여 국제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자국의 식량안보를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KREI 현안분석 제20호

중국의 농식품 수입 동향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9. 30.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빗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